

세계의 사료축산 뉴스

한국 축산시찰단 파견

미국사료 곡물협회 한국지부는 "한국축산시찰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축산에 관련된 여러 상황을 돌아보도록 주선했다.

이번 시찰단은 농수산부가 추천한, 삼양축산 개발주식회사 상무이사 신태승의 유남열(농수산부 낙농과장), 이준철, 윤여장(서울우유협 기술고문) 유대식(농협사료 과장)으로 구성, 11월 17일~12월 13일에 걸쳐, 박영인 차장의 안내로 선진축산의 여러 모습을 견학하게 되었다.

스케줄을 보면, 먼저 일본 Kagoshima 일대의 축산개발 상황을 돌아본 다음, 미국의 Seattle, Denver, Texas, New Orleans, Iowa, Minnesota를 거쳐 Washington으로 가서 미국사료곡물협회, 미국농무성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규모 Feedlot, 素牛購得難深化

미국의 Feedlot이 해마다 대규모 해감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素牛확보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 한다. 텍사스의 스탠포드 회사의 경우 일시에 170,000두 비육 규모의 Feedlot을 갖고 있는데, 년평균 2.5회전하여 450,000두 비육하므로 월 소요 素牛만도 약 40,000두 라는 것이다. 이 Feedlot에서는 600파운드짜리 素牛를 구입하여 1,100파운드까지 비육,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Frank Pinkerton 박사 내한

미국사료곡물협회 아시아 지부장 Pinkerton 박사가 11월 12일 내한하였다가 한국 축산시찰단의 일본스케줄을 안내하기 위하여 17일 시찰단과 함께 Fukuoka로 떠났다. 이번 방한기간중에는 삼화, 신흥, 신정, 한독, 삼정 등 목장에 들려 한국기업축산현황을 보았고, 대한중합식품의 육가공실태도 시찰했다.

한편, 농수산부 및 업계관계자들과도 만나, FY75(1974. 7~1975. 6)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

지부 사업계획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소련, 금년 곡물 상황 기록적 대풍

10월 26일, 소련의 제일서기장 Brezhnev 발표에 의하면, 1973년도 소련 곡물생산은 목표의 108.9%에 해당하는 2억 1,500만톤이 될 것이라 한다. 이는 그동안에 예상했던 것 보다 1,500~2,000만톤이 많은 수량이다. 소련은 작년의 홍작으로 20억불 상당의 곡물 4,700만톤을 수입한바 있다.

미농무성 전문가들은 소련의 금년 소맥생산을 1억 1,000만톤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예상보다 1,000만톤, 작년 생산량보다 2,400만톤이 많은 것이다.

이번 소련 발표가 있기전에 미국 전문가들은 명년 6월 30일 까지의 세계 소맥 소비초과를 560만톤으로 보아 세계 재고감소를 우려하였고, FAO에서도 세계양곡 비축제를 제의하기 까지 했었다.

그러나, 금번 소련발표가 정확하다면 금년 세계 소맥생산은 3억 6,500만톤에 다달아 작년보다 3,400만톤이 많아져서, 명년 6월까지의 소맥 공급 가능량은 소요소비량을 오히려 400만톤 가량 초과하는 계산이라 한다.

미국 Iowa 주 옥수수생산

3,000만톤 넘어 21%차지

미국은 세계 옥수수 총생산량의 50%를 접하며, 다시 Iowa 주는 금년에 미국총량의 21%에 해당하는 3,000만톤가량 생산하리라 한다.

옥수수 톤당 생산비 76불 44선

미국 옥수수 생산자 협회는 금년도 옥수수 톤당 생산비가 \$76⁴⁴라고 발표했다.

산출근거는 경작단위 200정보, 정보당 수확

미국 옥수수 생산 10대주

단위 : 1,000M/T

순위	주 명	수 량	순위	주 명	수 량
1	Iowa	31,129	6	Ohio	6,657
2	Illinois	26,016	7	Missouri	5,939
3	Nebraska	14,377	8	Wisconsin	4,474
4	Indiana	14,121	9	Kansas	4,020
5	Minnesota	13,002	10	S,Dakota	3,739

7.9톤, 토지가격 정보당 2,500불을 기준한 것이
라 한다.

희랍 곡물수입

1년간에 3배증가

희랍은 1972년도의 5% 곡물감수와 급격한 축
산 진흥으로, 1973~74년도의 곡물수입은 100만
톤이 넘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전년도의 34
만톤에 비하여 무려 3배에 해당하는 수량이다.

세계적인 곡물공급 긴박현상에 감하여 희랍은
이미 지난 7월에 옥수수 싹곡 76만톤 수입을 미
국과 계약하였고, 8월에는 다시 미국소맥 15만
톤, 불가리아소맥 1만 5천만톤을 구매하였으며,
금후 옥수수 10만톤, 대맥 10만톤, 소맥 1만 5
천톤을 더 구입할 것이라 한다.

이와같은 곡물수입의 급증은 축산물수요증대
가 직접적으로 영향한 것이라는바, 희랍정부는
축산진흥책으로, 양축가에 대한 소득세 면제, 종
축수입 면제, 소요자금의 80% 융자, 사료가격
보상 등 축산 장려시책을 펴고 있다 한다.

비육우 수송열피해, 연간 1억불

소우 수집지역이 광역화함에 따라, 미국전체
Feedlot 이 수송열(Shping fever)로 인하여 받
는 연간 피해액은, 폐사손실 8천만불, 치료비용
2천만불, 도합 1억불에 달한다고 한다.

전체 Feedlot 의 80%가 수송열을 경험하고 있
으며 1972년의 경우 Feedlot 육우 2,800만두중 1.
26%에 해당하는 35만 2,800두가 감염되어 1,000
두 이하의 feedlot 에서는 두당 10불 93선, 1,000

두 이상에서는 3불 46선의 손실을 갖어왔다. 체
중별 폐사율을 보면 500파운드이하에서 63%, 50
0~800파운드가 30%, 800파운드 넘는 것은 7%
에 불과하였다.

수송열이란 장거리 수송등으로 인한 stress 에서
흔히 오는 것으로, 소의 행동이 느려지고, 콧물
을 흘리며 때로는 고열과 폐렴이 수반되는 숨가
쁜 질병이다.

일본, 계육수입 4만톤

근래의 배합사료가격 증압에도 불구하고, 일
본의 금년도 계육생산은 69만톤으로 작년의 11%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한다.

한편, 계육수입은 전년도 보다 25%가 많은 4만
톤으로 전망되는 바, 이중 미국은 약 1만 2천톤
공급할 것이라 한다.

금년 전반기중 미국과 중공은 전체의 3/4을 공
급하였고, 금후 불가리아, 헝가리 이외에도 루
마니아가 수년에 걸쳐 5천톤을 조달하리라고 한
다.

1972년에 2만 7천톤을 수입한 일본의 냉동회
사 및 난황시장은 비교적 안정세에 있고, 난계
품, 전전란의 수입이 계속증가추세에 있다.

금년 1~6월중의 동경 Broiler 평균 도매시세는
전년동기보다 6%가 상승하여 kg당 384원에 처
래되었는데, 금년 후반기에는 크게 등귀할 것으
로 내다보고 있다.

페루 앤초비 어획, 명년 3월이후 재개될듯

금년 10월부터 재개예정이던 페루의 앤초비어
획은, 계속되던 해류부조가 정상화되어감에도,
명년 3월 이후에 가야 재개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페루 수산상이 발표했다.

페루의 한 과학자는 어획가능량을 300~400만
톤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1971년이전의 1천
만톤이상 어획에 비해 크게 격감한 수량이다.